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AI 수익성 우려 재부각..나스닥 1.3% ↓

- 미국 증시 혼조..다우 상승, 나스닥은 하락
- 유가 하락에도 매파 연준 경계감에 금리·달러는 상승
- '가격 경쟁' 심화 우려에 AI 수익성 논란 재부상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마감: 다우 +0.29%, 나스닥 -1.33%

6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는 지수별로 혼조 마감. 이란과 미국 사이 종전 관련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지난주 FOMC 이후 매파 연준에 대한 경계감이 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재료로 반영돼 투자심리 개선에 걸림돌이 됨. 스페이스X로까지 이어진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과 증자, 막대한 투자는 AI 산업 내 가격 경쟁에 대한 전망이 일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AI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와 브로드컴을 제외한 반도체주 등은 상승세로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권에 거래를 마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9% 상승한 51,712.7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37% 하락한 7,472.79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한 26,166.60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100 지수는 0.19% 하락한 30,347.08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로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83% 상승한 3,004.40에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2.98% 상승한 17.28을 기록.

(다우 +0.29%, 나스닥 -1.33%, S&P500 -0.37%, 러셀2000 +0.83%)

이란 원유 수출 60일간 허용..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최종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합의. 미국은 이란산 원유 판매를 위한 60일짜리 제재 유예 조치를 발효했고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호르무즈 해협 안전항행 보장에 협력하기로 함. 이에 국제유가는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가 하락.

다만 IEAE 사찰단 복귀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 차는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 JD 뱅스 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함. 하지만 이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핵사찰 관련 논의, 나아가 비핵화 관련 쟁점 논의 등에서는 험로가 예상.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관련 분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립 이상의 긍정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재부상한 AI 수익화 논란

거대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와 그를 정당화해 줄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전면에 부상.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AI에 대한 주요 거대 기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일부 AI 산업이 ‘범용화’를 향하고 있다며, 성능에 차별이 없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가격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성능보다 가격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알파벳과 오픈AI, 엔트로픽, 스페이스X 등 AI 모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온 거대 기업들의 해자가 불분명해짐. 달리 말하면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온, 최근에는 회사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들 거대 AI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음.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불거진 가운데 대규모 차입을 단행한다는 소식은 관련 투자심리를 보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됨. 여기에 더해 최근 AI 모델 제미니가 개발을 이끌었던 구글 노엄 샤지어 부사장이 오픈AI로 떠났으며 구글 딥 마인드의 핵심 연구자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 존 점퍼가 경쟁사 엔트로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 즉 업계 내 인력 쟁탈전이 심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관련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이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스페이스X 등의 거대 AI 기업군이 대체로 약세를 보임.

영국, 브렉시트 10년..총리는 7명

영국에서는 결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10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지난달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리직 유지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2029년 여름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의 실각을 우려한 노동당 의원들의 압박으로 결국 사임. 이로써 영국은 브렉시트 10년만에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차기 총리는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유력하게 꼽힘. 당 대표 경선 출마 의향을 밝혔던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이 이날 버넘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영국의 정치적 상황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가장 큰 불확실성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 이에 파운드화는 장 중 달러 대비 더 큰 폭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782% 상승 마감.

특징종목

반도체주 강세..엔비디아는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04%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는 대체로 상승.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83%)가 상승세를 이끄는 흐름으로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트로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함.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이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 공동 설계, 보안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한편 번스타인과 니드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함. 번스타인이 1,300달러, 니드햄이 1,55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음. 번스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90일간 메모리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였으며 견조한 수요와 가격 환경, 제한된 증설로 기본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함. 이에 여타 메모리 관련주를 포함, 반도체주가 대체로 강세. AMD(+2.65%), 인텔(+5.19%), 텍사스 인스트루먼츠(+2.92%), 온 세미컨덕터(+8.16%), 샌디스크(+4.07%), 시게이트(+2.23%), 램 리서치(+5.27%), KLA(+3.7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74%). 이외 VANECK SEMICONDUCTOR ETF(SMH)(+1.37%),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SOXQ)(+2.14%), ROUNDHILL MEMORY ETF(DRAM)(+5.23%) 등 관련 ETF도 큰 폭 상승.

다만 엔비디아(-0.97%)는 이날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 SMH 대비 저조한 성과를 지속하고 있음. SMH가 올 들어 85%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는 12% 가량 상승에 그쳐. 월가가 인공지능 구축의 다음 단계에서 메모리 칩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엔비디아는 시장 관심의 한 가운데에서 살짝 벗어난 상황으로 읽힘. 예측 시장 플랫폼 'Kalshi'에서 트레이더들은 엔비디아 B200 칩의 컴퓨팅 파워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음.

AI 수익성 논란..빅테크 중심 약세

구글 모회사 알파벳(-4.99%)이 크게 하락. 우선 최근 잇따른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지난주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 겸 제미니 AI 모델 공동 책임자 노암 샤지어가 오픈 AI로 이직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금요일,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겸 엔지니어링 펠로우, 알파폴드의 공동 개발자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잘 알려진 존 점퍼가 9년만에 회사를 떠나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고 밝힘. 업계 내 핵심 인력 쟁탈전이 꽤 격하게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일련의 상황에 더해 이날 마이크로소프트(-3.18%)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AI 거대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주장. 그는 일부 AI 모델의 범용화에 대해 언급하며 성능에 차별이 없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AI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 바 있음. 가격 경쟁이 강도를 높여 진행될 경우 알파벳과 오픈AI, 엔트로픽과 스페이스X(-16.43%) 등이 진행하고 있는 AI 모델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음. 최근 잇따르는 거대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인데, 앞서 지난주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직후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어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는 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있었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도 스페이스 X가 사상 첫 회사채 발행을 통해 최소 2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으로 이날 투자자들과 콜을 진행했다고 보도함. 채권 가격 결정과 발행은 이르면 현지시각 2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 스페이스 X 주가는 3거래일째 이어진 하락으로 상장 직후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함. 이외에도 아마존닷컴(-4.99%), 메타 플랫폼스(-2.32%), 브로드컴(-4.67%), 오라클(-5.00%) 등이 동반 하락함.

이외 특징주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5.66%)의 주가가 급등. 인공지능 엔비디아와의 협

력 관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ISC 고성능 컴퓨팅 콘퍼런스 개막에 맞춰 고성능 컴퓨팅용 신제품 ‘데이터센터 빌딩 블록 솔루션’의 청사진을 공개. 이 인프라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NVL4’ 플랫폼에 최적화된 것. 주가는 다만 여전히 6월 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위브(-5.65%)는 지난 주말 여러 고위 임원들의 내부자 매도를 공개.

세일스포스(-1.09%)는 14거래일 연속 하락. 지난 14거래일간 거의 30% 하락했고 올 들어서 약 44% 하락한 상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상황.

게티 이미지 홀딩스(+90.05%)는 오픈AI와의 라이선스 계약 발표 이후 급등. 생성형 AI 확산으로 사업 기반이 흔들리던 게티이미지가 챗 GPT 안에서 자사 사진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오픈AI와 다년간의 콘텐츠 표시 계약을 체결. 이로써 AI가 위협이 아닌 새 수익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

드론 제조사 에어로 바이런먼트(-10.78%), 우주 사업 부문의 영업권 손상 분석에 사용된 장부가액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어 1월 31일로 끝나는 3개월 및 9개월 기간의 실적을 수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급락.

애브비(+6.25%)가 애퍼지 테라퓨틱스(+46.66%)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 애브비는 이번 인수를 통해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생명공학 기업 아포지 테라퓨틱스 주가 급등했고 애브비도 강세.

셰브론(+0.82%)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료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텍사스 서부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20년간 이 데이터센터에 연료를 공급하는 내용.

한편 도미노피자(-5.56%)는 CEO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3월 초 이후 최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이란이 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이 복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진행 중인 생산적 협상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통행을 보장하고 IAEA 사찰단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이와 함께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간의 한시적 제재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힘.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는 곧 원유 공급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직전 거래일 대비 2.32% 하락한 배럴당 74.82달러에 마감. 지난 3월 4일 이후 최저치. 브렌트유 8월물 역시 3.31%

하락한 배럴당 77.90달러에 마감. 이는 지난 3월 2일 이후 최저 증가.

국제 금가격은 다소 유화적인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분위기에도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을 반영해 하락.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1% 하락한 트로이 온스 당 4,199달러대에 거래됨. 직전 거래일 3% 가량 급락했지만 반등 없이 추가 하락. 장 중 지난 11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1%대 하락으로 온스당 65달러 초반대를 기록.

매파 연준 경계감 여전.국채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지난주 FOMC에서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과 향후 통화정책 관련한 매파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낸 연준에 대한 경계감으로 일제히 상승(국채 가격 하락).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금리는 연료 가격 안정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 완화보다 ‘매파 연준’ 재료를 더 강하게 반영. 여기에 스페이스X가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는 소식도 국채 매수 심리 약화로 금리 상승(가격 하락) 요인.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오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연내 총 3차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은 것도 이날 국채금리의 방향성을 강화함.

뉴욕 채권시장에서 2년물 금리는 4.9bp 상승한 4.2257%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5.6bp 상승한 4.5088%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5.1bp 상승한 4.9483%를 기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1% 내외로 전장 대비 낮춰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을 34%,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을 36% 내외로 반영.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18%로 높아졌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0%로 집계됨.

달러 가치 3일째 상승

미 달러화 가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매파 연준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해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달러 강세 요인이 됨.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15% 상승한 101.00을 기록. 달러인덱스가 101선을 상회한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엔화는 장중 달러/엔 기준 162엔대에 근접하는 등 약세 흐름을 지속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일본 도쿄 방송의 보도가 나온 이후 순간적으로 급락하기도 했음. 달러/엔 환율은 0.01% 상승한 161.55센을 기록.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의 사임 소식이 있었지만 차기 총리직 도전 의사를 밝힌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부 장관이 유력한 총리 후보인 앤디 버넘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겹쳤다는 인식에 파운드화는 오히려 달러 대비 더 큰 폭 상승하기도.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37.0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90원 상승한 1,538.9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이프포인트(-0.9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1.35원 상승한 1,537.4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